

기관돌보기 | 충북재활원 기쁨의집

“우리는 모두 같은 이웃입니다”

청주시 흥덕구에 위치한 기쁨의집은 병명동 소재 빌라에서 운영하는 시설로 남성 지적장애인 4인 종사자 1인 비상근 원장 1인으로 구성된 작은 공동생활가정이다.

2009년 10월 설립되어 15년 동안 지적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가사활동, 사회적응훈련 등 다양한 사업 운영에 힘쓰며, 입주자 스스로 역량을 키워 지역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 지난해 A 이상의 등급을 받는 등 충북도내 우수한 공동생활가정으로 자리매김했다.

(편집자주)

2023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전 영역에서 'A등급'을 획득한 충북재활원 기쁨의집(원장 배선희)은 2009년 설립되어 15년간 지적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 시설은 청주시 흥덕구 병명동에 위치한 빌라에서 운영되며, 남성 지적장애인 4명과 사회복지교사 1명, 비상근 원장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인 기쁨의집은 지역의 일방가정처럼 운영되도록 노력하며, 입주자들이 자립하여 지역사회에서 독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가사활동과 사회적응훈련이 핵심사업이다.

가사활동은 크게 의·식·주로 구분되는데 구체적으로 의류 세탁, 식사 준비, 주거 및 공용 공간 청소 등으로 나누며, 입주자들은 각 의류에 적합한 세탁 방법을 익히고, 구매된 식재료를 이용해 식사를 준비하며, 자신의 개인 공간과 공용 공간을 청소하는 방법을 배운다.

사회적응훈련은 지역 문화시설을 이용하여 입주자들이 스스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예를 들면, 지적장애인 입주자가 시내 대중교통을 이용해 영화관을



기쁨의집 입주자와 직원들의 모습

장애인의 자립, 인식개선 및 선입견 해소 목표  
 도움을 받는 존재에서 도움 줄 수 있는 존재로...

방문하는 등의 경험을 통해 사회적 활동 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게 지원한다.

이렇게 입주자들은 자신의 능력을 강화시키고 지역사회와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으로 통합될 기회를 가진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입주자 개개인 이 자신만의 문화생활을 즐기는데 도움을 주며, 자립 활동에 중점을 두고 시행차이를 통해 지속적인 개선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외에도 현재 입주자들은 충북재활원 보호작업장에서 제빵 및 양초 제작·임가공 분야의 직업훈련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입주자들은 지적장애인으로서는 그동안 지역사회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아오고 있다.

이에, 차기년도 사업을 계획하면서 도움을 받는 존재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방법을 궁리하여 '골목길 환경미화 활동'을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으게 됐다.

상반기에는 4월부터 6월까지, 하

반기에는 9월부터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시설이 위치한 골목길에서 환경조성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 덕분에 골목길이 조금이나마 깨끗해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입주자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자발적으로 활동에 참여하며, 이 과정에서 지역주민들과 자연스럽게 소통할 기회를 가지게 됐다. 이는 오고 가며 마추치는 지역주민들과의 유대감 형성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이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즐거움을 느끼면서 단순히 받는 존재가 아닌 주는 존재로서 역할을 완수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1인 종사자로 시설을 잘 운영할 수 있던 계기는 재단 소속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9개 시설이 서로 도와가며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충북재활원 사랑의집, 길, 샘, 숲 4개의 시설은 같은 원장님의 지도 하에 공동회의를 개최하여 시설 운영에 관한 내용 논의 및 각종 사회복지

정책을 공유함으로써 1인 종사자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한 30년 이상의 사회복지 경험을 보유하고 계신 원장님의 지도를 받아 내실 있게 운영하며, 법인 사무국의 꼼꼼한 업무 점검을 통해 재정 및 행정 업무의 누수를 방지하는 2중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시설 운영을 체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다.

배선희 원장은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정책의 큰 패러다임은 ‘탈시설’이기에 앞으로 지적장애인들이 시설에서 독립하여 지역사회에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는 사람마다 자립역량을 키워 지역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공동생활가정의 중장기 발전 방향이라고 생각하여 이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박종필 사회복지교사는 “지적장애인들이 본인만의 욕구를 갖고 있지만, 종종 필요한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며 “사회복지 예산이 확충되면 공동생활가정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지적장애인들이 더 나은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아직 장애에 대한 인식 수준이 서구에 비해 낮다고 생각하며 지적장애인의 외모적 특징이나 말투의 차이로 장애를 알아차릴 수 있지만 그들과의 차이점보다 공통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차이점을 찾는 과정에서 차별의식이 싹트기에 같은 이웃으로 생각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충북재활원 기쁨의집은 지역사회의 장애인 인식 개선 및 선입견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도 힘쓸 예정이

충북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나서

3년간 총 288억원 추가 투입... 연차적 호봉제 적용

충북도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3개년(2024~2026년) 계획을 수립해 3년간 총 288억원을 추가 투입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도는 처우개선 계획 수립에 앞서 도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보내 전체 시설(1246개소)과 전체 종사자(1만7253명)를 대상으로 2023년 10월 11일부터 11월 17일까지 설문조사 실시, 도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실태조사 결과를 도민과 함께 공유하는 공청회(200명), 전문가 자문회의, 충청북도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 '제1차 처우개선 종합계획'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번 처우개선 종합계획은 복지현장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통한 복지서비스 질 향상을 비전으로 4개 추진전략, 17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4개 추진전략은 보수준 개선, 안정적 근로여건 조성, 직무역량강화, 인권향상이다. 먼저 보수준 개선을 위해 기존에 추진해 온 소규모사회복지시설 호봉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비 지원 수준이 낮은 시설에 대해 연차적으로 호봉제를 적용하고, 호봉상한을 15호봉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안정적 근로여건 조성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 확대, 건강검진 지원 및 건강검진을 위한 공개제도 도입, 한 시설에서 5년 이상 장기근속 근로자에 대한 장기근속 휴가를 시설 여건에 맞게 시행할 수 있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분야별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실무역량강화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을 확대한다.

종사자 인권향상을 위해 인권감수성 향상교육, 종사자 상해보험료 신규로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만족도 및 요구도 조사를 통해 월급타입도 내실 있게 추진한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종합계획은 '충청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2022. 10. 14. 시행)에 따라 3년마다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준 및 지급실태 등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립하는 계획이다.

충북도, 야간·휴일 시간제보육 어린이집 운영

12개월 이상 7세 이하 아동, 이용료 시간당 2000원

충북도는 오는 8월부터 평일 야간, 주말·휴일에 일시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위해 '야간·휴일 시간제보육 어린이집'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야간·휴일 시간제보육 어린이집'은 야간·휴일에 양육자의 긴급한 상황이나, 주말근무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 서비스다.

충북도는 사업 운영에 앞서 공모 및 심사를 거쳐 시설 적합성, 접근성, 편의성 등을 고려해 서비스 제공기관 3개소를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3개소는 청주시 상당구 동심의나라어린이집, 청주시 흥덕구 북대동 맑은샘어린이집, 증평군 엔젤어린이집이다.

충북에 거주하고 있는 12개월 이상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이라면 누구나 '야간·휴일 시간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다. 평일 오후 6시부터 12시까지, 주말·공휴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부모 부담 이용료는 시간당 2000원

이다. 신청, 설 연휴, 추석 연휴, 어린이날을 제외하고 상시 운영되며, 이용 시 자녀에게 필요한 기저귀, 개별침구, 간식 등은 개인별로 준비해야 한다.

이용 예약과 신청은 보호자(신청인) 신분증, 영유아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해 어린이집으로 전화 또는 방문하면 된다.

제공기관 연락처는 청주 동심의나라어린이집(☎043-294-3241), 청주 맑은샘어린이집(☎043-236-0525), 증평 엔젤어린이집(☎043-838-0305)이다.

도 관계자는 “연장근로, 병원진료 등 긴급보육에 대한 수요가 많아져, 야간·휴일에도 이용할 수 있는 보육서비스가 필요하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양육자의 육아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도는 시범운영 후 추가 수요 등을 고려해 사업의 운영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기쁨의집 입주자들이 골목길 환경미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기쁨의집 입주자들이 환경미화 활동 후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회복지 정보제공 서비스’ 신청 안내

- 발송횟수: 주 3회(문자서비스)
- 발송내용: 도내 사회복지 행사 안내·유관기관 공모사업 제공
- 발송대상: 도내 사회복지시설·기관 종사자
- 신청기간: 상시접수

주 3회!



문자서비스 신청 바로가기



# 단양군보건의료원 정식 개원

### 30병상 10개 과목 진료... 의료공백 해소 기대

단양군은 지난 1일 '새로운 시작, 힘찬 도전, 건강한 단양'을 주제로 단양군보건의료원 개원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원식은 대강 소백산 터사랑 풍물패와 도립 교향악단의 식전 행사, 김문근 단양군수의 개식 선언과 개원사, 김영환 충북지사·염태영 국회의원·이상훈 단양군의회회장·오영탁 충북도의회회원의 축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축사 대독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영상축사, 개원 기념 영상 시청, 감사패 전달, 드림합창단의 축하공연, 기념식수, 커팅식 및 제막식 순으로 진행됐다.

단양군보건의료원은 2002년 장수군 개원 이래 22년 만에 개원하는 보건의료원이며, 총면적 2996㎡에 지하 1층, 지상 2층, 30병상으로 건립됐으며 10개 과목을 진료한다.

특히 응급의료 체계를 구축해 2015년 4월 군의 유일한 응급의료기관이었던 단양서울병원이 폐업하며 이어졌던 주민들의 불편함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CT를 포함한 100여종의 최



단양군은 지난 1일 단양군보건의료원 개원식을 개최했다.

신식 의료 장비와 최고 사양의 구급차를 갖췄다.

김문근 군수는 "단양군은 더 나은 건강과 복지를 위한 새로운 여정의 출발점에 서 있다"며 "단양군 보건의료원이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고 진료하는 곳이 아니라 단양을 건강하게 만들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곳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의료원은 보건소의 기능에 응급실, 전문의 외래진료, 입원진료 등 병원 기능을 더해 보건소와 병원 기능을 모두 수행한 다.

# 음성군, 어린이집 현장학습비 지원

### 1550여명 아동 혜택... 지원금 활용 체험형 미술공연

음성군은 최근 관내 모든 어린이집 원아에게 현장학습비를 지원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현장학습비는 그동안 부모가 전액 부담하는 필요경비 중 하나로, 아동들의 체험비, 간식비, 차량 임차료 등에 사용된다.

이번 지원은 군이 처음으로 도입한 정책으로, 1억5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1550여명의 아동에게

혜택을 제공했다.

지원금을 활용해 음성군 어린이집 연합회는 지난 2일 음성문화예술회관에서 어린이를 위한 체험형 미술공연 '매직 사이언스 콘서트'를 개최했다.

이 공연은 오전과 오후 총 2회에 걸쳐 진행됐으며, 900여명의 아동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조병욱 군수는 "이번 현장학습비 지원이 부모님의 양육 부담을



음성군은 지난 3일 지원금을 활용해 체험형 미술공연 '매직 사이언스 콘서트'를 개최했다.

경감시키고 아동의 성장에 일조해 아이 키우기 좋은 음성 실현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청주시는 지난 9일 제41회 충청북도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충북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행복모아(주)와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청주시, 장애인들의 꿈을 향한 멈추지 않는 도전

### 오는 9월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성공 개최 협력

청주시는 지난 9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충북발달장애인훈련센터에서 제41회 충청북도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충북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항현), 행복모아(주)(대표이사 안민)와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신병대 청주시 부시장, 정선용 충북도 행정부지사, 김환국 공단 기획관리이사, 안민 행복모아(주)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는 우수 장애인을 발굴·육성해 고용 촉진을 유도하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해소와 사회적 인식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매

### 충북사회복지신문

발행인	유응모	사회복지 출판·홍보위원장	박상준
(28583)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3층			
전화	043-234-0840		FAX : 043-234-0849
E-mail	cbbokji043@naver.com		홈페이지 : www.043w.or.kr

년 시·도와 공동주최하는 대회다. 올해는 오는 9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청주시에서 개최된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장애인 숙련기술인 적극 양성 및 우수 기능장애인 상호 추천, 대회 관련 정보공유 및 지원,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신병대 청주시 부시장은 "우수 기능장애인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뜻깊은 대회가 청주에서 열리게 돼 매우 기쁘다"며 "각 기관이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대회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노인복지 확대' 진천군에서 건강한 노후를

### 생거진천형 통합돌봄 프로그램 등 운영

진천군이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탄탄한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노인 복지를 선도하고 있다.

지난 2일 군에 따르면 진천의 노인 인구는 작년 말 기준 1만 5933명으로 총 인구 8만6254명의 약 18.5%를 차지한다.

군 단위 지방정부에서는 낮은 비율이긴 하지만 현재 노인 인구 증가세를 고려하면 조만간 초고령사회 진입 기준인 2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은 초고령사회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생거진천형 통합돌봄' 프로그램 등 복지 시스템을 확대하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고 있다.

생거진천형 통합돌봄 프로그램은 노인들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해 지역 내 다양한 의료·돌봄 서비스를 연계하는 대상자 맞춤형 통합지원 체계다.

군은 통합돌봄 사업을 통해 노인 7000명을 대상으로 총

8930회의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 노인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보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이러한 통합돌봄 사업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작년 7월에는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지자체로 추가 선정됐다.

두 시범사업에 연속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전국에 7곳밖에 없으며 군 단위로는 전국에서 진천군이 유일하다.

군은 지역 특화형 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한 결과, 통합돌봄 서비스 분야에서 2020년 이후 4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이점표를 세웠다.

특히 2023년에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지역복지 사업 평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분야' 대상료·돌봄 서비스를 연계하는 대상자 맞춤형 통합지원 체계다.

군은 올해에도 시범사업 예산 10억5500만원 외에도 자체 예산 8억3200만원을 편성해 찾아

가는 통합간호센터 '우리 동네 돌봄 스테이션', 주민 참여형 마을공동체 돌봄 '거점 돌봄센터, 동네 복지사', 지역사회 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한 '생거진천 재택 의료 센터', 사회적 농업 돌봄 서비스 '생거진천 케어-팜(care farm)' 등 1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복지 사각지대의 위기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읍·면 중심의 민관 협력형 보건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군에서 위촉한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814명이 지역 곳곳의 복지 안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고독사 위험군 보호 체계인 생거진천 안부 확인 서비스 시스템을 서버를 구축, 현재까지 500여명을 발굴해 지원하고 있다.

이 밖에도 군은 민선 8기 노인복지 분야 시책사업으로 간식비 지원사업, 60세 이상 결식 위험 노인 밑반찬 지원 서비스, 마을노인회 임원 활동비 확대, 노인돌봄 생활 지원사 처우개선 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 충주시, 노인인권보호 유공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노인 인권지킴이 지원

충주시가 보건복지부 주관 8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노인보호 유공 지자체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노인인권보호 유공 지자체 표창은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 제고와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 등 노인 인권증진에 기여한 우수 한 지자체에 수여되는 상이다.

시는 2022년 도내 최초로 장

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비를 지원해 기관종사자 전문성과 인력을 유지하며 서비스 질 개선에 기여했다.

또 지난해 노인 인권지킴이 활동을 지원하고 요양 시설 49%를 인권지킴이 시설로 지정하는 등 시설 입소노인 인권 강화를 제도적으로 보유했다.

이 외에도 시설 운영 투명성 제고와 기관종사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지도점검과 재무회계

교육, 노인학대 예방교육, 노인 인권교육 등 노인인권 침해와 학대를 예방했다.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 수행기관과 노인보호전문기관간 협약을 이어 충주장기요양기관협회를 구성하는 등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홀몸노인과 시설 내 노인학대를 조기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비했다.

조길형 시장은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제천시, 임신 사전 건강관리사업 추진

### 난소기능검사 및 초음파 검사 비용 등 지원

제천시는 임신을 준비하고 있는 부부(사실혼, 예비 부부 포함)를 대상으로 임신 사전 건강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3일 시에 따르면 임신 사전 건강관리사업은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가임력 검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여성은 난소기능검사(AMH)와 부인과 초음파 검사 비용을 최대 13만원까지 지급하

는 한편 남성에게는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비용을 최대 5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e보건소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신청 후 검사 의뢰서를 발급받아 전국의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의료기관에서 검사하고 검사비를 보건소에 청구하면 된다.

검사가 가능한 병원은 여성검사의 경우 연세미즈산부인과, 미래산부인과, 모아산부인과, 김태웅산부인과, 한기정산부인과이며, 남성검사는 미래산부인과, 양의원 등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임신 사전건강관리 사업을 통해 관내 부부들이 건강한 임신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 보건소 모자건강팀(☎043-641-3225)으로 문의하면 된다.

"맛있는 나눔, 사랑의 실천" 푸드뱅크가 함께합니다.  
모두와 손잡고 나눔의 세상을 만듭니다.

식품별 모집 가능기한			생활용품별 모집 가능기한		
구분	기부 식품군	모집 가능기한	구분	종류	모집 가능기한
가공 식품	제과류	스낵, 사탕, 껌, 초코렛 등	세제류	세면용 세제, 샴푸, 린스	최소 90일 이전
	즉석식품	면류(리면, 소면, 스파게티 등), 즉석밥, 죽 등		세탁용 세제, 주방용 세제, 욕실용 세제	최소 60일 이전
	냉동식품	아이스크림, 케익, 비닐포장, 스테이크 등	휴지류	화장지	최소 60일 이전
	통조림	참치, 정조림, 과일통조림 등	수건류	물휴지	최소 90일 이전
정류 및 식용류	정류	된장, 고추장, 간장, 소금 등	기저귀류	수건, 종이 수건, 손수건, 행주	최소 60일 이전
	소스류	드레싱, 고기양념류 등	신체 위생용품류	유아용 기저귀, 성인용 기저귀	최소 60일 이전
음료류	기름류	식용유, 참기름 등	여성 위생용품류	치약, 칫솔, 구강세정제	최소 90일 이전
	주스, 탄산음료, 멸균우유, 건강음료(홍삼) 등	최소 30일 이전	머리빗, 면도용품, 손톱깎이	최소 60일 이전	
신선 식품	육가공류	햄, 소시지, 베이컨 등	생리대	최소 60일 이전	
	농산물	두부, 순두부, 콩나물, 호박, 파, 김치류 등	고무장갑, 걸레, 빗자루, 쓰레받기, 쓰레기통, 수세미	최소 60일 이전	
제빙류	각종 슈퍼마켓, 제과점 빵류	가정용 살충제	최소 90일 이전		

**충북광역기부식품지원센터**  
(충북광역푸드뱅크)

기부방번호  
**043) 234-1377**  
광역 대량 기부

전국 어디서나  
**1688-1377**  
지역 소량 기부

# 증평군, 아이돌봄서비스 도내 1위 선정

## 올해부터 증평형 365 아이돌봄서비스 시행

증평군이 지난 8일 전국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227개소 평가 결과 도내 유일하게 A등급을 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면서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받게 됐다.

군은 도내 최고 수준의 아이돌봄서비스로 인정받았다.

군은 행복한 아동·만족하는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돌봄 수요

에 맞춘 돌봄 인프라 및 시스템 구축,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돌봄 연계사업 발굴, 증평형 365 아동돌봄 등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생후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다.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해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등·하원 준비, 준비된 급·간식 챙겨주는 물론 긴급급·일시·주말 돌봄, 병원 동행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중 2자녀 가정 50%, 3자녀 가정 90%의 본인부담금을 군비로 지원하는 증평형 365 아이돌봄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다.

이재영 군수는 "아이돌 키우는 데 실질적이고 제값할 수 있는 돌

봄이 무엇인지 늘 고민하고 있다"며, "아이돌 키우기 걱정 없는 도시로 전국 지자체의 돌봄 롤모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을 원하는 가정은 신청 전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고,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 회원가입을 하면 된다.

기타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문의사항은 증평군여성단체협의회 아이돌봄서비스(☎043-835-3863) 전담 창구로 하면 된다.

# 증평군, 초보부모 육아스텝 방문서비스 본격 시행

## 육아정보, 산후 우울증 등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증평군이 증평형 365 아동돌봄사업의 일환인 '초보부모 육아스텝'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지난 9일 군에 따르면, 2023년 충북도 시범사업으로 도내 유일하게 시행한 찾아가는 '초보부모 육아코칭' 서비스를 인기를 얻으며 올해는 전년도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단계 더 발전시킨 '초보부모 육아스텝'을 추진한다.

초보부모 육아스텝 사업은 지역 내 48개월 미만 자녀를 둔 초보 부모를 위해 육아매니저와 돌봄행정사가 가정을 방문해 육아 고민 및 돌봄 관련 정보 등 맞춤형 양육 상담을 지원한다.

군은 사업 시행을 위해 앞서

양육상담 지원이 가능한 육아매니저와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증을 소지하고 2년 이상의 보육경력을 가진 돌봄행정사를 채용했다.

육아매니저가 초보 부모에게 돌봄·육아 정보는 물론 산후 우울증 등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돌봄행정사는 상담이 이뤄지는 동안 육아를 책임진다.

본 사업의 이용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회 2시간 이내로, 기본 3회까지 무료 이용이 가능하며 필요시 추가 이용도 가능하다.

신청은 증평군청 누리집 또는 충청북도육아자랑포털에서 가능하며, 문의 사항은 (☎043-835-4817~8)로 하면 된다.



증평군이 증평형 365 아동돌봄사업의 일환인 '초보부모 육아스텝'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재영 군수는 "아이돌 키우려면 많은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만큼 우리 군은 앞으로도 양

육자와 함께 최상의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보은군, 무인민원발급기 외국어 지원 서비스 시행

## 군내 다문화가정·이민자 위한 언어장벽 해결 서비스

보은군이 무인민원발급기에 외국어 지원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역 내 700명 이상의 다문화가정과 이민자들이 겪는 언어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무인민원발급기에 한국어 외에도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등 4개의 외국어를 추가로 지원한다.

외국인 주민들의 이용이 많은 속리산, 장안, 삼승, 수한, 회인, 내북, 산외면 등 7개소에 우선적으로 설치해 외국인 주민들이 주요 민원서류를 보다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외국어 지원 서비스를 추가하지 않은 지역 9곳의 무인민원발급기에도 앞으로 추가 언어를 설치해 외국인 주민들이 민원 업무를 처리할 때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편의성을 높일 방침이다.

산외면에 거주하는 한 외국인은 "한국어가 아직 서툴러서 민원서류 발급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쉽게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어서 정말 편리하다"며 "앞으로도 민원 업무를 볼 때 언어 걱정 없이 마음 편하게 볼 수 있어 감사하다"고 소감을 말했다.



보은군 거주 외국인이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민원 업무를 보고 있다.

임춘빈 민원과장은 "외국인 주민이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이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이번 외국어 지원 서비스를 도

입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옥천군이 지난 13일 옥천군 대청호반 '스마트복합센터'의 개장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 옥천군, 충청권 최초 스마트복합센터 본격 운영

## 농산물 직판매장 및 휴식·문화 공간 제공

옥천군이 지난 13일 옥천군 대청호반 '스마트복합센터'의 개장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스마트복합센터는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업해 도로 이용자를 위한 휴식 공간과 지역홍보관 및 농특산물 판매장을 결합한 융·복합시설이다.

옥천군은 2020년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20억원을 확보, 군비 44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64억원을 투입했다.

안내면 장계대교(안내면 성왕로 2304) 부근, 탁 트인 대청호 풍광을 내려볼 수 있는 곳에 위치한 옥천군 대청호반 스마트복합센터는

지상 2층(연면적 499.76㎡) 규모로, 농산물 직판매장 및 휴게실 등 휴식·문화 공간을 제공한다.

대청농업협동조합이 운영기관으로 선정돼 위탁운영을 하고 있으며, 운영시간은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월~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다.

다만, 국도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화장실이 위치한 홍보동은 상시 개방한다.

# 영동군, 교통 복지정책 강화... 통합이동지원센터 운영

## 나들이카드 발급대상 대폭 확대 등

영동군은 지난 1일부터 농어촌버스 무료 승차 대상자를 확대하고 현재 교통약자를 위한 통합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한다.

군은 농어촌버스를 무료로 탑승할 수 있는 나들이카드 발급대상을 기존 70세 이상에서 18세 이하 어린이·청소년, 등록장애인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른 수혜자는 농어촌버스 이용자 약 3000여명으로 예상하며 기존 70세이상 카드발급자 1만200명를 더하면 영동군민 30%가 농어촌버스를 무료로 이용하는 혜택을 받게 된다.

특히 군은 중증보행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통합이동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이 통합이동지원센터에서는 휠체어 리프트 차량 5대를 운영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또한 중증보행장애인 외에도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내용의 병



영동군 농어촌버스 나들이카드.

원 진단서를 첨부하면 등록장애인, 65세이상 노인, 임신부,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로 이용 가능하다.

등록 문의는 영동군통합이동지원센터(☎1555-2461)로 하면 되고, 이용자등록 후 예약 문의는 충북광역시 동 지원센터(☎1533-0220)로 하면 된다.

# 괴산군, 저소득가구 60세대에 여름 이불 지원

## 취약계층의 온열질환 피해 최소화

괴산군이 오는 8월 9일까지 폭염에 대비해 저소득가구 60세대에 여름 이불(620만원 상당)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의 온열질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폭염 대비 기상상황 수시 확인, 규칙적으로 물 마시기, 낮 시간대 야외활동 자

제 및 실외작업 최소화, 냉방기 사용법, 무더위쉼터 안내 등 폭염 대비 국민행동요령을 홍보했다.

송인현 군수는 "최근 기후변화로 폭염과 집중호우가 반복되는 등 연일 무더위와 습한 날씨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번 예방물품으로 소외되는 우리 이웃들이 건강한 여름을 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폭염·폭우 등 자연재해로부터 주민들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괴산군은 취약계층인 거리노숙인 및 행려자 등에 대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예방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무더위쉼터 147개소 운영과 냉방비를 지원하고 있다.

## 충북사회복지신문

### 광고 게재 안내

충북사회복지신문은 사회복지기관 및 관련단체, 시민단체, 병원, 학교, 자원봉사자와 후원자, 일반시민 등 전국으로 배포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이슈를 효과적으로 알리고 싶은 분은 적극적으로 충북사회복지신문을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충북사회복지협의회 김세나 사회복지사 (T.043-234-0840~2)

지면	규격	배색	금액(원)
1면	4단 (360mm x 138mm)	컬러	300,000
	제호 옆 들출 (67mm x 33mm) (3개월)	컬러	100,000
2면 ~ 7면	4단 (360mm x 138mm)	흑백	200,000
8면	4단 (360mm x 138mm)	컬러	250,000
	세로포스터 (150mm x 195mm)		

게재 개월 및 기타 상황에 따라 협의 조정 가능

# 출생통보제 · 위기임신 지원 동시 시행

### 미등록 아동 발생 방지... 공적체계에서 보호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부터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가 동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두 제도는 지난해 6월 수원 영아사망사건이 발생한 이후, 출생 미등록 아동 발생을 방지하고 아동을 보다 빈틈없이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출생통보제는 아동의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면 아동의 출생 사실

과 출생 정보를 바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이다.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해야만 아동을 출생 등록할 수 있는 현행 제도로는, 출생신고되지 않은 아동에 대해 국가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어려웠다.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은 자동으로 시·읍·면에 출생 통보되어 공적 체계에서 보호될 수 있

다. 다만, 임신과 출산 사실이 주변에 밝혀지는 것을 꺼리는 일부 임신부들은 출생통보제를 피하기 위해 의료기관 밖에서 아동을 출산하고 유기하는 사례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도입된 보호출산제는 경제적·사회적 상황 등 다양한 이유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위기임신부가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하고 출생통보까지 할 수 있도록 하여 산모와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다만, 이 제도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기 때문에 위기임신부가 보호출산을 고려하기 전에 직접 아동을 양육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맞춤형 상담을 지원하는 상담체계를 함께 구축했다.

지난 19일부터 전국 16개 위기임신부 지역상담기관과 상담전화(☎1308)가 운영되고 있다. 또한 위기임신부들이 상담에 찾아오실 수 있도록 평소 소접하기 쉬운 장소로 중심으로 지역상담기관과 상담전화를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 이달 12일부터 '자살예방교육' 의무 시행

### 국가, 초·중·고,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등 연 1회 실시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자살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자살예방교육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살예방법 개정(23.7. 공포, '24.7.12. 시행)에 따라 자살예방 의무교육 대상 추가, 교육 방법, 실시 횟수, 결과 제출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교육 의무화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개정 자살예방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초·중·고등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자살방지 및 생명존

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연 1회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살예방 교육 노력 대상은 자살예방법에 규정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자살예방법 시행에 따른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 '대안교육기관법'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등이다.

교육은 자살예방 인식개선 교육과 생명지킴이 교육으로 나뉜다. 인식개선 교육은 생명의 소중함과 가치, 자기 이해와 돌봄, 도움 요청에 관한 내용으로 학생·직장인 등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권장한다.

생명지킴이 교육은 자살 문제와 현황, 자살위험요인과 자살경고신호, 자살 위기 대응 기술 등으로 구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권장한다.

인식개선 교육 또는 생명지킴이 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집합·시청각·인터넷 교육 등으로 실시할 수 있다. 자살예방 교육 의무화는 개정 자살예방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지난 12일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부칙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7월 12일 이전까지 종전의 자살예방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 경우 2024년도 자살 예방 교육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

자세한 자살예방 교육 안내와 교육 수강은 누리집(edu.kfsp.or.kr)을 참고하면 된다.

# 2024년 신규 도입 '요실금 치료 지원사업' 추진

### 충북은 보은군·청주시 선정해 의료비·의료기기 지원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지방자치단체 공모를 통해 올해 7월부터 신규 도입되는 '요실금 치료 지원사업'을 추진할 16개 시·군·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요실금 치료 지원사업'은 노인들의 사회적 참여를 제한하는 요실금을 적기에 치료받아 노인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요실금 관련 의료비와 의료기기 사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의지와 사업 추진 필요

성, 사업계획서 작성의 충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경기도 광명시,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정선군·화천군, 충청북도 보은군·청주시, 충청남도 공주시·금산군·보령시·홍성군,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전라남도 담양군·영광군, 경상남도 창원시·남해군을 2024년 사업 수행 지역으로 선정했다.

선정된 16개 지역은 올해 7월부터 요실금 치료 지원사업을 통해 요실금 관련 의료비와 의

료기기 사용을 지원한다.

의료비 지원사업은 60세 이상 요실금 진단자 중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등)을 대상으로 연 100만원 범위 내에서 요실금 관련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의료기기 지원사업은 보건의료기기 지원센터, 노인복지관 등 노인 접근성이 좋은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의료기기를 비치하여 환자가 인근 시설을 방문하여 편하게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신규 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연내

평가기관을 선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향후 사업 확대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예정된 사업 규모에 맞는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등을 감안하여 7월 중 추가 선정을 위한 2차 공모를 실시할 예정이다.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어르신들의 건강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요실금 치료 지원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신 16개 시·군·구에 감사드립니다"며,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적기에 요실금을 치료받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유지하실 수 있도록 2차 공모에도 각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 치매환자 실종 예방 위한 배회감지기 지원 강화

### 4590여대 신규 무상 보급, 물량 60% 증가

보건복지부는 경찰청, SK하이닉스와 함께 지난 5일 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에서 '치매환자 발달장애인 배회감지기 무상보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내용은 SK하이닉스사의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치매환자와 발달장애인에게 배회감지기를 무상으로 보급하고 통신비(2년)를 전액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번 협약으로 다음과 같이 지원을 강화하여 2027년까지 지속한다.

SK하이닉스는 연간 지원 규모를 2023년 2871대(약 7

억원)보다 약 60% 증가한 약 4590대(약 10억8000만원)로 확대하고, 2022년에 보급한 기기 4131대(1억3000만원)에 대해서는 무상지원 기간을 1년 더 연장할 예정이다.

이گی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배회감지기 무상 보급에 감사드리고, 보건복지부의 다른 대응 방안과 함께 실종에 더욱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 2025년 적용 최저임금안 시간급 1만3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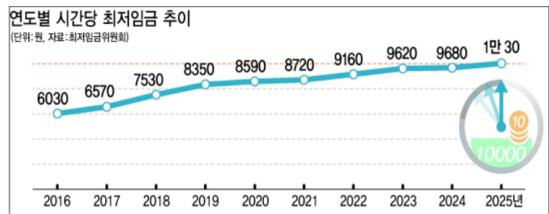
### 올해 대비 170원 1.7% 인상 월 환산액 209만6270원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 올해 최저임금 9860원에서 170원(1.7%) 오른다. 월급 기준으로는 209만627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노·사·공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열고 위원 투표를 거쳐 이같이 최종 결정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시한 최종안인 시간당 1만120원과 1만30원을 투표에 부친 결과 경영계 안이 14표, 노동계 안이 9표를 받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으로 이뤄졌으며 투표 직전 민주노



총 측 근로자위원 4명이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 최종구간에 대한 반발로 투표에 불참하면서 23명만 참여했다.

공익위원 9명 중 4명은 노동계 안에, 5명은 경영계 안에 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지난 5월 21일 내년 최저임금 심의가 개시된 지 53일 만에 최종 결정이 이뤄졌다. 역대 최장 심의였던 지난해 110일의 절반 수준으로, 예상보다 빠른 진행이었다.

지난해 심의를 마친 지 1만원의 문턱을 마침내 넘으면서

역사적인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리게 됐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1만원대를 기록하는 것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처음이며, 최저임금이 5000원대로 올라선 2014년도 이후 11년 만이다. 다만 인상을 1.7%는 지난 2021년의 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작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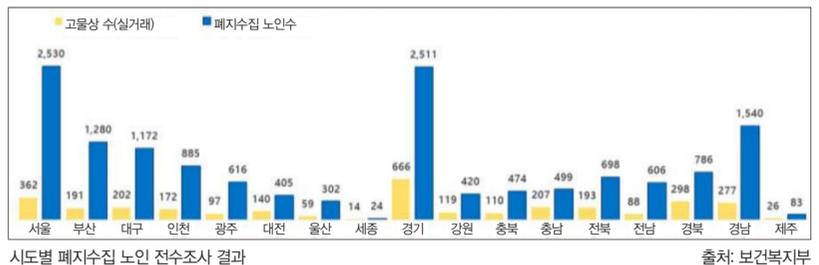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은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2023년 9620원

(5.0%), 올해 9860원(2.5%)이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48만9000명,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301만1000명으로 추정된다. 최저임금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된다.

노동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하며,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노동부는 이의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지금까지 한 번도 재심이 이뤄진 적은 없다.

경영계도 결국 최종안이 채택되긴 했지만,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급 능력 약화 등을 들어 동결을 강하게 요구해 왔다는 점에서 다소 아쉬움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 전국 폐지수집 노인 평균 78세

### 복지부, 지자체 전수조사 발표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폐지수집 노인 지원대책' 일환으로 실시한 폐지수집 노인 지방자치단체 전수조사 결과를 지난 9일 발표했다.

전국의 폐지수집 노인 평균 연령이 78세 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평균 소득은 76만6000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수조사를 위해 지자체는

지역 내 읍면동,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지역복지 민간자원 등과 함께 전수조사 추진계획 회의 등을 개최하고, 지역신문·케이블 tv 등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추진하는 등 폐지수집 노인 관리체계를 구축했다. 폐지수집노인 전수조사 결과, 전국 229개 시군구 폐지수집 노인은 1만4831명으로 집계됐다.

시도별로는 서울시(2530명, 17.1%)와 경기도(2511명, 16.9%)가 전체의 34.0%를 차

지했고, 뒤를 이어 경상남도 1540명(10.4%), 부산(1280명, 8.6%), 대구(1172명, 7.9%)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세종특별자치시가 24명으로 가장 적었다.

폐지수집 노인의 평균 연령은 78세이며, 여성이 55.3%로 남성보다 조금 더 많았다. 연령구간별로는 80~84세 비중이 28.2%로 가장 높았고, 75~79세(25.2%), 70~74세(17.6%), 85~90세(14.3%) 순이었다.

90세 이상도 3.0%를 차지했다.

## 전문봉사단이 되어 나눔을 실천하세요! 지역사회봉사단!

#### 지역사회봉사단이란?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시스템(vms)에 등록된 다양한 재능과 특기를 갖춘 봉사자들이 모여 사회복지기관·시설·단체·소외계층에게 지속적으로 맞춤형 봉사활동을 하는 전문 자원봉사단

#### 위촉기준

vms 가입 2인 이상으로  
구성되고 연 4회 이상 활동  
가능 단체

#### 봉사단 혜택

- 활동재료비 일부 지원
- 자원봉사활동 시간(vms) 인정
- 관리 및 봉사활동 연계
- 다양한 문화공연 초청

**SSN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복지사업과 박민정 코디네이터    전화) 043-234-0840

# 충북하나센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충북하나센터는 지난 14일 청주 S컨벤션에서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지난 14일 기념행사 개최... 240여명 대상 취업 상담·자격증 취득 등 프로그램 제공

충북하나센터(센터장 백운기)와 충북도는 지난 14일 청주 S컨벤션에서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7월 14일 '북한이탈주민의 날'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날(1997년 7월 14일)로, 북한이

탈주민의 포용과 정착 지원을 위해 올해 5월 국가기념일로 공식 지정됐다. 이날 행사에는 도내 북한이탈주민 및 이북도민 등 240여명이 모였으며, 정선용 충북도 행정부지사, 이양섭 충북도의회 의장, 이강일 국회의원, 유응모 충청북

도사회복지협의회장이 참석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날 지정을 축하해 줬다. 아울러 청주월드휴먼브리징고아데터 팀장을 비롯한 6명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유공 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백운기 센터장은 "올해 최초 국가기념일로 제정된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기념하며, 앞으로 도내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더욱 더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정선용 행정부지사는 "우리도는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취업상담,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안정적 정착을 위해 심리치료, 주민화합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도내 북한이탈주민들이 충북을 제2의 고향으로 여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양섭 의장은 "첫 번째 맞이한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북한이탈주민 분들이 자부심을 갖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정책개선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충북하나센터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10년 설치되어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적 및 초기 생활 지원, 통합안전지원사업, 심리지원 프로그램, 충청북도역사탐방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 도내에는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많은 1430여명의 북한이탈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다.

# 충북사회복지협의회, 보일러 교체 2억5000만원 투입

도내 109가구 신규 설치 등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유응모, 이하 협의회)는 노후(연탄)보일러 교체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이민성, 이하 모금회)의 지원으로 실시되며, 총 예산 2억5000만원으로 충북도내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109가구에 노후된 연탄보일러 및 부대시설 교체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업 대상은 도내 연탄쿠파수해가구 중 연탄보일러 노후로 인해 위험도가 높은 가구, 연탄보일러를 난방용으로 신규설치하고자 하는 가구, 기존(기름·가스



충북사회복지협의회와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 1일 노후(연탄)보일러 교체 지원사업 전달식을 가졌다.

보일러를 연탄보일러로 교체 설치하고자 하는 가구 등이다. 유응모 회장은 "2023년 연탄은행 조사에 따르면 충북도내 연탄 사용 가구수가 7618가구로, 전국 3위에 달한다"며 "노후화된 연탄보일러 및 부대시설 교체를 통해 피해받는 도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협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충북광역자활센터, '청년 가입자 특화서비스' 협약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대상

충북광역자활센터(센터장 안성희)는 지난 10일 충북광역자활센터 교육장에서 문병원, 마이돈케어스쿨, 한국공인신용상담사협회, 은퇴&진로설계연구소와 함께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은 안성희 충북광역자활센터장, 이태재 은퇴&진로설계연구소 대표, 오승진 마이돈케어스쿨 대표, 신기종 한국공인신용상담사협회 이사, 서경준 문병원장이 참석했다.



충북광역자활센터는 지난 10일 '청년 가입자 특화서비스' 사업 추진을 위해 4개 기관과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불안정한 경제 상황, 미흡한 자산관리, 낮은 금융 이해력 등으로 통장유지에 어려

움을 겪고 있는 충북지역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에게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 가입자 특

화서비스' 사업의 활성화와 기반 구축을 위해 추진됐다. 각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충북도내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대상으로 지원하는 '청년 가입자 특화서비스' 중 개인 맞춤형 재무컨설팅 서비스를 협력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충북광역자활센터는 충북지역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들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미래를 이어갈 수 있도록 협약 기관들과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청년의 다차원적 어려움의 지원을 통해 궁극적으로 청년의 탈빈곤과 자립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제천복지재단이 지난 5일 지속 가능한 미래와 성장을 위한 'ESG 경영 선포식'을 개최했다.

# 제천복지재단, ESG 경영 선포식 개최

가치 확산·동반 성장 약속

제천복지재단(이사장 유응식)이 지난 5일 지속 가능한 미래와 성장을 위한 'ESG 경영 선포식'을 개최했다. 제천복지재단은 제천시 출연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경영 전반에 ESG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해 ESG 경영을 도입했다. 이날 선포식에는 제천북

지재단 및 산하시설 임직원 30명이 참석해 ESG 전략체계 발표, ESG 경영 선언문을 선포하고 ESG 경영 목표인 (E) 친환경 경영 실천, (S) 사회적 가치 실현, (G) 투명한 윤리경영 실현을 바탕으로 10개의 핵심 추진 과제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확산하기 위해 뜻을 모았다. 유응식 이사장은 "이번 선포식을 계기로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선도하는 본연의 역할에 친환경 경영 실천 및 지역사회와 지속 가능한 동반 성장하는 제천복지재단이 되겠다"며 "재단뿐 아니라 산하 시설이 ESG 경영에 참여하며 ESG 경영 확산에도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재단의 다양한 사업은 누리집(jewf.or.kr), SNS채널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대표번호(☎043-647-1237)로 문의하면 된다.

# 지적발달장애인 권익 보장·사회통합 분위기 조성

충북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충북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제천시지부(지부장 김종희)는 지난 11일 제천 문화회관에서 '제19회 지적발달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지적발달장애인에 대한 권익 보장 실현과 사회통합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이번 기념행사에는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 관련 종사자, 봉사자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1부 기념식에서는 발달장애인



충북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제천시지부는 지난 11일 제천 문화회관에서 '제19회 지적발달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관리선언 낭독, 발달장애인 복지 증진에 노력한 시민·종사자, 타의 모범이 되는 장애인에 대한

표창 및 후원자에 대한 감사패가 수여됐다. 또한 자기권리 주장대회 대상

수상자의 자기권리 주장발표부터 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부모회원들의 장구공연까지 다채롭게 진행됐다. 2부에서는 발달장애인들이 자신의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예술제가 진행되어 10개의 참가팀이 연주, 노래 및 댄스를 선보이며 모두가 즐기고 화합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최부금 문화복지국장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한 권리를 누리며 차별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제천을 만들기 위해 장애인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 장애인 형제 둔 비장애 형제·자매 캠프 '해피투게더'

충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스트레스 해소·포레 교류

충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센터장 최승민)가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1박 2일간 장애인 형제 둔 비장애 형제·자매를 대상으로 '해피투게더' 캠프를 개최했다. 이번 캠프는 충주슬로우파머와 충주유기농체합교육센터에서 진행됐으며, 장애인 형제 둔 비장애 형제·자매들의 스트레스 해소와 포레 간 교류를 통한 사회적 협동심 발달을 목적으로 기



충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1박 2일간 장애인 형제 둔 비장애 형제·자매를 대상으로 '해피투게더' 캠프를 개최했다.

회했다. 참가자들은 계곡탐방트레킹, 꽃차만들기, 레크리에이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자연을 만끽하고 포레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캠프에 참여한 한 비장애 자매

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언니들과 함께할 수 있어 너무 기쁘다"고 말했다. 참여자 부모는 "장애 형제·자매들이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 사회복지 유관기관 정보와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공유복지플랫폼

# '충북복지넷'



#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40개 정부기관 233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수록

기획재정부는 2024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자에는 40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정책 233건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 분야별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교육·보육·가족분야

####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 대상 및 이자면제 확대

2024년 7월 1일부터 청년들의 학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의 지원 대상과 이자면제 범위가 확대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이자면제 지원 대상을 기존 중위소득 이하 가구의 대학생까지 확대 지원한다. 또한, 상환유예 사유에 재난 피해(재난사태 선포 또는 특별재난지역 거주)를 추가하고, 유예(실직, 폐업, 육아휴직, 재난 피해) 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도 면제한다. 취업 후 상환 등록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학생도 기존 학자금지원 8구간에서 9구간까지 확대한다.

#### ●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운영

2024년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 약 6100개에서 1학년을 대상으로 늘봄학교를 운영한다. 늘봄학교는 기존의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개선한 단일체제로, 정규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학생 성장·발달을 위한 종합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 2024년 늘봄학교는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교 1학년에게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연간 매일 2시간 무료로 제공한다. 지자체·공공기관·대학·기업 등과 연계해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사교육비 경감 등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드릴 예정이다.

#### ● 스톡킹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사업 전국 확대

스토킹 피해자의 신변 안전 보호 및 일상 회복을 위한 긴급 주거지원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긴급주거지원은 피해자가 일상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개별 주거 방식으로 원룸·오피스텔 등을 지원(최대 30일)하는 사업이다. 입소자 안전 보호를 위해 주거시설 내 가정용CCTV, 112신고 연계 장비 등을 구비하여 365일·24시간 긴급 보호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긴급주거지원 사업은 2024년 7월부터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된다.

#### ● 학교 밖 청소년 정보 자동 연계 확대

초·중·고 학교 밖 청소년의 정보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이하 꿈드림센터)로 자동 연계된다. 그동안 의무교육 대상(초·중) 학교 밖 청소년의 정보만 동의 없이 꿈드림센터로 연계되고 고등학교 단계 학교 밖 청소년은 동의한 청소년의 정보만 연계되어 지원의 사각지대가 있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고등학교 단계 학업중단 청소년의 정보도 사전동의 없이 꿈드림센터로 연계되어 상담·교육·진로 등 맞춤형 지원을 받게 된다. 개정 내용은 2024년 9월 27일부터 시행된다.

#### ● 국민 마음건강 돌봄을 위한 심리상담서비스 실시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지원대상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국가 건강검진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우울증 선별 검사에서 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등이다. 대상자에게는 1:1 대면으로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총 8회(회당 최소 50분 이상)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가 제공된다. 서비스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서비스 유형 선택 및 대상자 기준별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는 바우처 결정 통지를 받은 후에 거주지 상관없이 이용이 편리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비스 가격은 1회당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은 7만원이며, 본인부담금은 기존 중위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 보건·복지·고용분야

#### ● 긴급돌봄 지원사업 도입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국민을 위해 긴급돌봄 지원사업이 새롭게 시행된다. 갑작스러운 주(主) 돌봄자의 부재(사망, 입원 등), 질병, 부상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돌볼 수 있는 가족 등이 없거나 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국민이 지원 대상이며, 서비스가 필요한 누구나 소득 수준에 따른 부담을 내고 이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국민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신속하게 이용 자격 확인을 거쳐 최대 30일(72시간)의 방문 돌봄, 가사·이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전국 확대

1인 가구 증가, 사회관계망 약화 등으로 증가하는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39개 시·군·구에서 추진 중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이 7월부터 전국에서 시행된다. 지자체의 고독사 위험군 발굴·관리 및 지원 대상자를 위한 안부 확인, 생활환경 개선 등 예방·관리 서비스가 제공된다. \* (예) ▲민간 협력 안부 확인 ▲생활 환경 및 생활 형태 개선 지원 ▲공동체 공간 및 사회적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운영 ▲사후관리 지역별 특성에 맞는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사업이 이루어지는 만큼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로 문의 가능하다.

#### ● 위기임신 상담 및 보호출산 지원제도 시행

경제적·사회적·심리적 어려움으로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들을 위한 상담과 원가정 양육을 위한 서비스 연계가 시행된다. 위기임산부 상담전화(☎1308)를 통해 가까운 지역상담기관에서 각종 법령에 따른 사회보장 급여와 직업·주거, 의료비 지원 같은 경제적 지원,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지원 같은 법률적 지원뿐만 아니라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연계하여 출산 전후에 주거·돌봄 및 출산 후 상호조리도 연계받을 수 있다. 각종 지원에 대한 충분한 안내 및 상담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원을 밝히고 출산을 하기 어려운 임산부가 보호출산을 희망할 경우 가명과 주민등록번호 대체 번호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서 가명진료·출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이가 태어난 후 임산부는 최소 7일은 아이와 시간을 보내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난 후 지방자치단체는 출생등록 및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 1 식품의약품안전처

#### 의약품 허가정보의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 표시 의무화

시행일: 2024년 7월 21일

- 사·청각장애인이 의약품의 허가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오남용을 예방할 수 있도록 일부 의약품의 포장 등에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가 의무화됩니다.

대상품목	안전상비의약품(17개), 식약처장이 정하는 의약품(28개)의 총 39개 품목
확인방법	□ 표기 대상 의약품 용기 또는 포장에 '제품명'은 점자로 표기 □ 수어 영상을 통해 '제품명',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정보 제공

### 2 경찰청

#### 신속한 실종아동 발견을 위한 CCTV 정보 제공 등 수색 강화

시행일: 2024년 9월 27일

기존	변경
· 경찰관이 실종아동 등의 수색·수사 시 CCTV·카드정보 등을 제공하려면 반드시 영장 발부가 필요했습니다.	· 경찰관이 실종아동 등의 수색·수사 시 영장 발부 없이 필요요청만으로도 CCTV·카드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되어, 더욱 신속한 수색이 가능해졌습니다.

### 3 행정안전부

#### 인감증명서, 정부24에서 무료 발급

시행일: 2024년 9월 30일

기존	변경
· 그동안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했습니다. ※ 발급 용도와 상관없이 방문 발급만 가능	· 앞으로는 정부24(www.gov.kr)를 통해서 인감증명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범용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는 정부24에서 발급 가능

### 4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 청년·초기기업 전(全)주기 투자 확대

시행일: 2024년 10월(농식품 청년기업 성장펀드 결성)

기존	변경
· 지금까지 청년기업 육성 목적 정책펀드는 '영피머스 펀드'가 유일하여 청년기업 유형에 따른 차별화된 지원이 어려웠습니다. (펀드규모: '23년 152억원)	· 청년기업 성장 전(全)주기를 아우르는 '농식품 청년기업 성장펀드' 결성 · 성장단계별 전용 펀드를 신설하고 펀드 규모도 대폭 확대 (펀드규모: '24년 470억원)

### 5 소방청

#### 차량용소화기 의무화,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확대

시행일: 2024년 12월 1일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규정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소화설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11조(자동차에 설치 또는 비치하는 소화기)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소방청
소화기 비치	7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 ●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시행

치매환자의 체계적 치료 및 관리를 위한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이 2024년 7월 1일부터 지역 22개 시·군·구 내 참여 병원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시범사업 지역 내 치매환자는 모두 해당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치매 관리를 위한 전문성이 높은 의사로부터 치매증상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문제까지 포괄적으로 관리 받을 수 있다. 체계적인 치료·관리 계획에 충분한 상담·교육, 비대면 관리 등을 받을 수 있으며, 필요 시 방문진료 서비스까지 제공된다.

#### ●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시행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을 통해 기존에 3·4인실 위주로 운영되던 노인의료복지시설을 1인실 중심의 시설로 전환하고자 한다.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시설 기준 및 인력배치 기준 강화를 통해 개선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니트케어형 시설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유니트케어형 시설에서 입소 어르신들은 넓고 쾌적해진 공간에서 돌봄을 제공받으실 수 있고 동시에 사생활 또한 유지할 수 있다.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100% 지원범위 확대

2024년 7월 1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통상임금 100% 지원범위가 확대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육아를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에서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로, 기존에는 주당 최대 5시간 단축분까지 통상임금의 100%(월 통상임금 상한액 200만원)를 지원하고, 나머지 단축시간은 통상임금의 80%(월 통상임금 80% 상한액 150만원)를 지원했다. 2024년 7월 1일부터는 주당 최대 10시간 단축분까지 통상임금의 100%(월 통상임금 상한액 200만원)를 지원한다.

#### ●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시행

2024년 7월부터 중소기업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 대한 실질적 사용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제도를 시행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들에게 사업주가 금전적인 지원을 한 경우 지원금을 지원하며, 지원대상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한 우선지원대상(중소기업) 사업주이다. 지원요건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주당 10시간 이상)하고, 업무분담 근로자를 지정하여 금전적인 지원을 한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명당 업무분담자 최대 5명까지 지정(합산지원한도 월 최대 20만원)할 수 있다. 지원수준은 사업주가 업무분담자에게 지급한 지원금액 범위 내 월 최대 20만원 지원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에는 기존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 ●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이용 급식시설 관리지원 확대

2024년 7월부터 연내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114개 시·군·구까지 확대 설치되어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급식시설(약 2500개소)에 대한 급식 위생·영양관리 지원이 확대된다.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사회복지급식시설에 센터 소속 영양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급식위생·영양관리 지도 및 질향 맞춤형 식단을 제공하고, 노인·장애인 등 이용자와 조리원 등 종사자에게 교육을 실시한다. 앞으로 식약처는 2026년까지 전국 모든 시·군·구(228개)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를 완료하여,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양질의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 함께한결음센터 14개소 신설 및 전국 확대

2024년부터 함께한결음센터\*가 전국 17개소로 확대된다. \* '마약류 중독재활센터'의 새로운 이름으로, 첫 번째 도전이나 전진을 함께하고 '마약류 예방·재활사업'을 통해 마약정착국으로의 회복'을 향해 함께 나아가겠다는 의미 함께한결음센터가 2023년 3개소(서울, 부산 대전)에서 올해 14개소를 신설하여 총 17개소로 확대된다. 마약류 사용자와 그 가족들의 재활 접근성을 강화하여 교육-상담-재활을 통한 신속한 사회복귀를 지원한다. 함께한결음센터에서 마약류 사용자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위해 지원하는 재활사업은 지역 내 중독자발굴,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의료서비스 연계, 회복지원가 양성, 재활교육 등이다.

#### ● 주거약자용 주택에 적용되는 편의시설 설치기준 개선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해 주거약자용 주택\*에 적용되는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개선한다. \* LH 등이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건설할 때 일정 비율(수도권 8%, 지방 5%)을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공급 지체장에 등 특정 장애유형에만 적용되는 선택 시설 중 높이와 관련된 시설(높이조절세면기 등)을 고령자 등 모든 주거약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적용대상도 확대된다. 개정 내용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거쳐 하반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행정·안전·질서분야

#### ● 출생통보제 도입

아동의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출생통보제\*가 도입된다. \* 의료기관의 출생정보 통보로 아동의 출생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출생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아동이 실해·유기·학대되는 등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2024년 7월 19일부터는 의료기관에서 아동이 출생하면 출생정보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되고, 시·읍·면의 장은 이를 토대로 신고 여부를 확인한 후 직권 출생등록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아동의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가 보장되고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하여 아동 복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제도 도입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음주운전 재범자를 대상으로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는 조건부 운전면허제도\*가 도입된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이 5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는 경우 일정 기간(2~5년) 동안에는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만 운전해야 한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란 자동차에 시동을 걸기 전 호흡을 검사하여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에만 시동이 걸리도록 하는 장치이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최대 5년까지 운전면허 취득 결정기간을 적용받는데, 결정기간 종료 후 같은 기간 동안 설치해야 한다.

복지광장

북한이탈주민의 날(7월 14일) 제정을 맞이하며

복지칼럼

타인의 삶을 관여하는 자? 타인의 삶을 지원하는 자?



김 소 망

남북하나재단(충북하나센터 파견) 전문상담사

올해부터 '북한이탈주민의 날(7월 14일)'이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발표를 통해 국가 기념일이 되었다. 또한 이 날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97.7.14.)된 날이기도 하여 이로써 의미가 충분하다. 현재까지 탈북 후 남한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3만4000명을 웃돌고 있다. 이는 우리의 주변에도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이 터를 잡고 정착하고 있다는 뜻이다.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의 이웃이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안타깝게도 다문화가정의 일부로 보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명시하는 다문화가족의 정의는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 귀화한 자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서로 다른 국적, 인종, 문화를 지닌 사람들로 구성된 가족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즉,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국제결혼 가정으로 부모 중 한쪽이 한국인으로 구성된 가정을 의미한다. 그러나 엄연히 따지면 북한이탈주민은 다문화가정이 아닌, 분단으로 인하여 도처 않게 흩어졌지만 한 뿌리를 나누는 우리의 민족이라는 점이다. 반세기 이상 헤어져 있었던 분단 이후 삶 속에서 각기 다른 문화와 교육, 역량 등이 발생하여 자리 잡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로써 우리가 그들을 다른 국적을 가진 타국민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과연 올바른 접근인지 깊게 고민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 매년 5, 6월이면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인 남북하나재단에서 전문상담사가 방문조사원이 되어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방문조사를 하게 되는데 해당 설문지에 몇몇 문항이 우리의 시선을 머물게 한다.

해당 문항은 아래와 같다. 지난 1년간 차별이나 무시를 당한 경험이 있느냐는 문항과, 이러한 차별과 무시를 당한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 문항, 이 두 가지이다. 지난해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통계 결과에 따르면 조사 응답자의 16.1%가 차별 또는 무시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차별과 무시를 당한 이유 중 대다수 응답한 사유가 말투, 생활방식, 태도 등 문화적 소통방식이 다른, 북한이탈주민의 존재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전문적 지식과 기술 등에 있어 남한사람에 비해 능력 부족, 인식 순으로 응답했다. 이는 정착 후에도 그들에 대한 편견이 존재하고, 이러한 편견과 선입견이 모여 성공적인 정착에 장애물이 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올해도 어김없이 해당 실태조사를 마쳤는데, 실태조사를 위해 만났던 북한이탈주민이 토로했던 한 마디가 기억에 남는다. "선생님, 저희도 열심히 현장에서 똑같이 일을 하고, 기술이 있어도 남한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은 외국인노동자 정도로 생각해서 속상합니다. 더 가슴 아픈 건 임금 또한 그렇게 책정이 된다는 사실이 씁쓸하죠. 그래서 남한에 정착하여 사는 것 또한 쉽지 않은 일입니다." 반복적으로 같은 어려움을 토로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탈북이라는 험난하고 긴 여정을 마치고 진정한 자유와 인권이 존중받는 삶을 기대했던 그들에게, 남한 생활은 또 한 번 넘어야 할 큰 산이라는 사실이라는 것을 몸소 느끼게 하는 메시지로 전해졌다. 통일을 준비하는 것은 먼 훗날 해야 할 일도 아니고, 그리 생각보다 어려운 일도 아니다. 현재 우리의 일상에서 마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을 우리의 이웃으로 보듬는 일, 그리고 따뜻한 시선으로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통일을 준비하는 가장 큰 방법이 아닌가 싶다. 더불어, 이러한 일들을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에겐 전달하고 교육하는 일 또한 우리가 해야 할 과업이다. 이러한 작은 실천과, 우리의 열린 마음과 시선이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한 밑거름이 된다면 이미 정착한 북한이탈주민들이 삶을 살아감에도 많은 격려와 희망이 될 것이 틀림없다. 매년 7월 14일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기념함과 동시에 이로써 북한이탈주민이 진정한 우리의 이웃인 된 것을 축하하는 기분 좋은 날로 자리잡기를 바란다.



최 은 희

다하주간이용센터장

"사회복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필자가 사회복지사로 4년 차 되던 해 어떤 기자가 질문을 던졌다. 이에 전문가다운 답변이 아닌 "두루두루 잘 살도록 지원하는 제도와 환경"이라고 말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있다. 이 표현이 사회복지사로 20년이 넘도록 일하면서 직장인 사회복지사가 아닌, 직업인 사회복지사로 정체성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사회복지사란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을 돕는 전문가로서, 취약한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 또한,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관리'라는 지원체계로 촘촘히 접근한다. 자활근로 참여주민, 다문화가정, 장애인, 노인, 그리고 보호아동청소년에게 보다 나은 그들의 삶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담당하게 말이다. 이렇게 담당하게 접근하고 있는 우리들이 그들의 삶을 내 경험에 따라 재단하고 있지 않은지 한 번쯤 생각해볼 일이다. 황현산님의 책 제목인 '내가 모르는 것이 참 많다'처럼 자기 경험치의 한계를 잊은 채 지원자의 기준으로 타인(고객)의 삶을 재단하고 있지 않은지.. 이처럼 사회복지현장의 동료와 선배들이, 사회복지사가 아닌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다양한 포지션자들이 '갑'이라고 인정하지 않은 채 '갑'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순간들을 너무나 많이 발견하게 된다. 분명 서비스 당사자들이 자기결정 능력이 있음에도 인정받지 못하고 더 좋은 것이 있다며 취급하지 않고 선택할 시간도, 생각할 시간도 너그럽게 기다려주지 않는다. 여기서 필자는 "당신은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은 존중되어야 하고, 그 누구도 차별받아서 안 된다고 생각하지요. 편견도 갖지 말아야 합니다"라는 주장으로 "당신은 정말 그런 사람입니까?"라는 질문을 던진다.

그러나 그 질문을 본인에게 던진다면 뭐라고 답할까? 더 나아가 명시적 편견과 암묵적 편견이었다. 명시적 편견은 의식적 수준에서 인간이 다른 사람이나 집단에 대해 가지고 있는 태도나 믿음을 의미하며, 반대로 암묵적 편견은 무의식적 수준에서 가지고 있는 태도와 믿음을 뜻한다. 여기서 의식적, 무의식적 수준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를 생각해 보자. 발달장애인은 자기결정권이 있으며, 그들의 결정을 존중하고 지역사회에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사회통합을 실현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명시적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이 알고 있는 자립 청년 발달장애인이 연애와 결혼, 임신을 결정할 때 "그건 안 했으면" 하길 바라는 나의 사고가 작동된다면 나는 암묵적 편견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부끄럽게도 이 글을 쓰고 있는 필자가 그랬다. 암묵적 편견으로 그들의 삶을 결정하려 했던 것이다. 이처럼 무의식적으로 자신도 모르는 순간 작동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현장에서 만나는 이들의 삶의 역사를 읽은 채 함부로 관여하고 싶지 않은 지 점검해야 하며, 자신도 모르게 갑과 을의 종속관계로 타인의 삶을 결정하고 재단하는 재단사가 아닌지, 사회복지현장에 있는 모든 실무자들이 자기성찰을 해야 할 이유이다. 어떤 삶도 타인에 의해 해석되고 결정되어서도 안된다.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그들을 잘 살도록 돕는 길이다. 우리 당사자들이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와 방법들을 나열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만 짧은 소견으로 이것저것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이다. 바로 이것이 '타인의 삶을 관여'가 아닌 '지원하는 방법'일 것이다. 관여는 '어떤 일에 관계하여 참여하는 것'으로 대상자에게 밀착된 주회자의 적극적, 공격적 태도가 담겨 있고, 지원은 '지지하고 돕는 것'으로 대상자에 대한 광범하는 자세가 담겨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관여자가 아닌 지원자는 '어떤 사람도 함부로 할 수 없다', '어떤 한 사람의 삶도 함부로 결정할 수 없다', '어떤 한 사람의 삶의 주인은 그 사람이다'를 명심하는 자가 아닐까? 20년 전 만났던 기자가 다시 "사회복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이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구석구석에 있는 자들이 두루두루 잘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도구이지요, 사회복지가 가장 좋은 것으로 타인의 삶을 관여하는 영역이 아닌 가장 적합한 것으로 타인의 삶을 지원하는 영역인 것 같습니다."라고...

현장의 목소리

충북 자활생산물 소개합니다



연 규 진

충북광역자활센터 대리

'충북광역자활센터'는 충청북도 내 자활사업 참여주민과 지역자활센터 사업에 대한 지원, 자활기업에 대한 전문 컨설팅, 교육지원 등 충청북도의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광역단위의 사업 수행 기관이며, 나의 소중한 일터이다. 이 곳에서 자활생산물 홍보와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으며, 12개 충북 지역자활센터, 사회적경제조직, 공공기관 등 여러 단체들과 소통하고 협력하여 충북의 자활생산물에 대한 인지도 확산과 판매 활성화를 위해 온·오프라인 다방면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나는 자활생산물 홍보와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지만, 이곳에 오기 전까

지 자활사업은 물론 충북의 자활생산물에 어떤 제품이 있는지 잘 몰랐다. 나처럼 자활생산물에 대해 잘 모르는 신문 구독자들에게 충북의 자활생산물을 소개하고자 한다. 자활사업은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이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근로연계복지제도로서,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을 목적으로 '자활 능력 배양,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자활 참여주민이 제조기술을 익혀 스스로 만들어 낸 상품이 자활생산물이다. 자활사업단이나 자활기업에서 생산하다 보니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기존 제품들에 비해 상품성도 뛰어나고 경쟁력도 있어 그 제품 자체에 매력이 있다. 충북광역자활센터는 충북만의 자활 고유브랜드인 '더담은' 시리즈를 개발하여 '더담은김에', '더담아유', '더담은 누룽지' 등을 키워나가고 있다. 특히 '더담은김에'와 '더담아유'는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어 참여자들의 애정을 더하여 일부 지역자활센터에서는 주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더담은김에'는 어떤 김은 짜고 어떤 김은 탄맛이 나기도 하고 어떤 김은 기름 맛이 강하고, 지금의 더담은 김에가

탄생하기까지 품질을 잡기 위한 현장코칭을 진행하며 여러 시행착오를 겪어온 노력의 결실이다. 현재 4개소 보은지역자활센터, 옥천지역자활센터, 증평지역자활센터, 제천지역자활센터가 공동사업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전장기, 도시락 김, 김자반, 김 선물세트의 품목들이 있다. '더담은김에'는 품질경영시스템 ISO 9001 인증과 보건복지부 인증 우수자활생산물로 선정되어 상품의 품질을 한층 더 강화했다. '더담아유'는 '더담은김에' 핵심인 기름 원가 절감을 위해 착유기 사업을 시작하게 되어 만들어진 상품이다. 착유 프로세스의 기본 구성에 대해 자세하게 조사를 하였고, 참여주민들의 역량을 감안 했을 때 적합하다고 판단한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기름의 향기, 맛을 내기 위한 컨설팅을 거쳐 만들어진 상품이다. 현재 4개소 청주지역자활센터, 단양지역자활센터, 제천지역자활센터, 충주지역자활센터가 공동사업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국내산 참기름 병, 들기름 병, 기름스타의 품목들이 있다. '더담아유' 또한 보건복지부 인증 우수자활생산물 경진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한 제품으로 깨끗하고 깊은 맛이 나는 안전한 기름이다.

마지막으로 '더담은 누룽지'는 충북도내 지역자활센터에서 기존 운영하던 누룽지 사업단과 함께 광역단위 누룽지 공동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출시된 상품이며, 증평지역자활센터의 누룽지 레시피를 공동사업단에 공유함으로써 맛과 품질을 향상 시켜 품질경영시스템 ISO 9001 인증까지 받은 상태이다. 기존의 지퍼백과 박스 누룽지에서 날개 소포장된 누룽지 상품을 개발했다. 이 외에도 진천 수제견과, 단양 호두파이, 청원 건강차 등 상품성이 뛰어나고 경쟁력이 있는 충북 자활생산물들이 있지만, 상품 자체를 모르고 인식이 낮다는 현실이 안타깝다. 이러한 이유로 홍보나 판로개척에 대해서 광역뿐만 아니라 시군 지역자활센터 자활생산물 담당자들도 많은 생각과 고민이 들고 어려울거란 생각이 든다. 그렇지만 광역과 지역자활센터 간의 꾸준한 소통을 통해 함께 충북 자활생산물에 대해 알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다 보면 길이 열리지 않을까? 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온·오프라인 다방면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자활생산물의 품질은 기존 제품에 뒤지지 않는다. 누가 만들었느냐 보다 어떤 제품을 내놓았는지 집중해 줬으면 좋겠다.

똑똑똑! 법률홍닥터입니다.

취약계층 법률 상담 서비스 법률홍닥터

법률홍닥터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취약계층에게 1차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법률주치의 제도'

지원내용

법률상담, 법교육, 소송절차 안내, 법률구조법인 및 사회복지기관 연계 등의 법률서비스 지원

신청방법

시 간 월~금 10:00~17:00(공휴일 제외) 전 화 043-238-0843 사무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302호

지원 대상

기초수급자·다문화가족·범죄피해자 등 법률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 취약계층

도움 받을 수 있는 분야

채권·채무 손해배상, 근로관계·임금 개인회생·파산, 이혼·친권·양육권 생활법률 전반



이 딸의 법률상식



신인경 변호사 (법무부 인권구조과)

Q. 상가 임차인 A는 임대하려는 임대점포에 기존 시설이 어느 정도 설치되어 있었고 그 기존의 시설물을 그대로 인수받아 임차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시설에 자신의 비용으로 추가적으로 시설을 하여 영업을 하였습니다. 이후 임대기간 만료 후 임대인 B는 A에게 처음 점포 인수 시에 있었던 기존 시설물까지 포함하여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의 원상회복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A. 상가 임대차 표준계약서는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에 관하여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을 원상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고 이와 동시에 임차인은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간단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는 최초 준공 상태의 건물에 임차인이 영업을 개시했다면 건물 처음의 상태로 되돌려야 한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 임차인이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사용하던 건물을 그대로 인도받아 건물을 사용한 경우는 현재의 임차인이 직접 시설하지 않은 부분까지도 원상회복의무가 인정될지 명확치 않으며 대법원 판례 역시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다른 특약이 없는 한 A씨의 경우와 같이 자신이 직접 시설한 범위 내에서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면 되고 전 임차인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계약 관계에 따라 원상회복의무를 범위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어 후속임차인이 임대인과 완전히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A씨의 경우처럼 직접 시설한 것에 한해 원상회복의무를 지지지만 임대차계약기간 도중 임차인의 지위를 이어 받은 형식으로 동일한 임대차계약을 이어 받았다면 전 임차인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의무를 지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상회복의무에 대해 서로 이견이 발생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반드시 특약사항에 원상회복의무를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인사동정

- 새생명지원센터 > 센터장 이필진 / 7월 1일자
■ 청주상당시니어클럽 > 관장 이영희 / 7월 1일자
■ 청주카리타스노인요양원 > 원장 권순오 / 7월 1일자
■ 충북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 관장 이상배 / 7월 1일자
■ 충북해능보육원 > 시설장 손태수 / 7월 1일자

인사동정 이용 안내
■ 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인사이동(기관장 변경, 법인 내 이동 등)에 대해 게재를 원하는 시설은 문의 바랍니다. \*043-234-0840 김세나 사회복지사

지역사회봉사단

'건강 알리미' 노인 맞춤 보건의교육 봉사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유영모) 소속 건강 알리미(단장 권혁주)는 지난달 24일 제천노인복지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노인 맞춤형 보건의교육을 진행했다. 건강알리미는 월1회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기 쉬운 운동 방법과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이 된다"며 "앞으로도 연령별 특성에 맞는 교육을 통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지역사회봉사단은 VMS에 가입된 2인 이상으로 구성된 봉사단체로,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봉사활동과 봉사활동에 필요한 소모품도 지원이 가능하다. 지역사회봉사단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단체는 충청북도 사회복지협의회 유선(☎043-234-0840~2) 또는 이메일(mjp7117@naver.com)을 통해 문의 가능하다.

나와 이웃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복지위기 알리미 앱"

복지 위기상황 도움요청을 쉽고 빠르게!



QR코드를 스캔하여 앱을 설치하세요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복지위기알리미'를 검색하여 다운로드

도움요청 누가 할 수 있나요?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공무원, 이·통장,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신고의무자

요청 방법은?

- 앱 설치 후 도움 필요 대상, 위기상황 선택 및 도움요청 내용 입력 (비회원, 익명 도움요청 가능)

어떤 경우에 요청하나요?

- 나와 이웃이 생계관련, 신체·정신건강, 고립 및 고독 등의 위기상황에 처했을때

무엇을 도와주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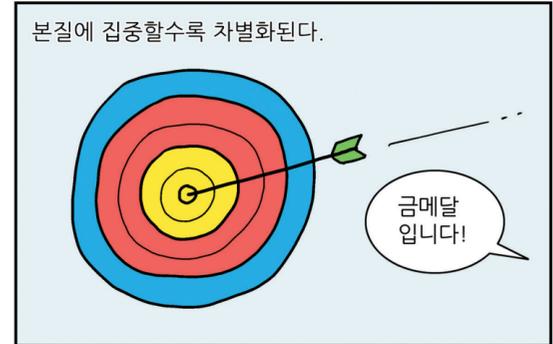
- 해당 지자체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긴급복지 등 공적 서비스 제공 (생계비, 의료비, 주거지원 등)
건강관리서비스, 돌봄 등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지원



복지/만/평

순금

이창신 www.bokmani.com



영리한 비영리한 핵심가치에 집중해야 합니다.

자원 봉사자 모집

▶ 가족문화프로그램 정기봉사
관리센터: 청주시가족센터
활동기간: 8.1~8.31
전화번호: 043-263-1818

▶ 치매예방 프로그램
관리센터: 괴산군노인복지관
활동기간: 8.1~8.31
전화번호: 043-834-3411

▶ 스마트상담소 자원봉사
관리센터: 청주가경노인복지관
활동기간: 8.1~8.31
전화번호: 043-236-0111

▶ 경로식당 조리봉사
관리센터: 산남종합사회복지관
활동기간: 8.1~8.31
전화번호: 043-288-1418

▶ 초등학생 놀이 및 학습지도
관리센터: 청주시남이다함께돌봄센터
활동기간: 8.1~8.31
전화번호: 043-291-4000

▶ 활동보조 자원봉사
관리센터: 보급자리주간보호방문요양센터
활동기간: 8.1~8.31
전화번호: 043-269-0220

▶ 어르신 식사배달
관리센터: 오송종합사회복지관
활동기간: 8.1~8.31
전화번호: 043-234-5479

지역사회봉사단 모집

관리센터: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활동기간: 연중
전화번호: 043-234-0840~2

\*자료출처: www.vms.or.kr